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
총 14건 안전 심사·의결

전남 해남군의회가 최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 간 진행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난 1월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마포구 남인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주요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해남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무 의원) 등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출산장려위원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성욱 의원이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방목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태 의원)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해남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은 중장년 단체 및 자활조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강화에 도모하도록 개정됐으며, 해남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노후 시스템의 교체·수리 및 관리·운영비 지원과 활용 사항을 규정해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안전 처리에 앞서 진행될 5년 자유발언에서는 이성욱 의원이 '가루쌀 1번지 해남, 이제는 산업으로'를 주제로 전국 최대 수준의 가루쌀 생산 기

우중혁 강남구의원 “청년 관점서 정책 설계물”

청년정책 성과평가 간담회

우중혁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민선8기 강남구 청년정책 성과평가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강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청년단체 대표 등 다양한 청년정책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물론, 대학생으로 학업에 매진 중인 청년당사자 안서준 패널리스트가 참석해 지난 4년간 추진된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연희회 중국대학교 외래교수는 “강남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청년 당사자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강남구 청년정책이 지원

을 넘어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수현 Funknel 마음수선소 소장도 “청년정책이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세대 연속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2040 청년세대가 모두 아우라질 수 있는 합리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평을 나신 우중혁 의원은 “청년이란 미래로 이어지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과 행정이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그려나가는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강남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관련 조례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AI 활용 스마트시티 구축 머리맞대

순천시의회, 미래도시 전략 포럼

“행정·도시 정책 접목 중요 과제”

전남 순천시의회는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과무홀에서 ‘AI 활용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주관으로 ‘순천 AI 미래 도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순천시 관계 부서 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및 학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AI 기술을 순천시 여건에 맞게 도시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심현 교수는 ‘지역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따른 순천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아진 토론에서는 순천시의회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회장인 이세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는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HyperAI 연구소 김현우 부소장, 순천시 추승남 도시전략과장, 국립순천대학

교 임종택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AI를 접목한 도시 전략과 행정·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독발한 의견을 냈다.

이세은 연구모임 회장은 “이번 포럼이 순천형 AI 미래 도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의견들은 결과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AI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께서 업무보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승현 의원은 “AI 기술을 행정과 도시 정책 전반에 심화시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은 AI 기반 순천형 스마트시티 정책 마련을 목표로 2024년 11월 구성됐다.

이 포럼에는 이세은 회장을 비롯해 이복남, 최희미, 김영진, 양동진, 유승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럼은 이날 말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강동구의회, 11일까지 임시회

서울 강동구의회가 오는 11일까지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점을 비롯해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근린공원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박원서 부의장은 ‘주민센터 복지인력 운영 개선’을, 권여우 의원은 ‘청년 탈모 관련 등, 원장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성당과 안전을 위한 길’이 필요함다’고 각각 발언했다.

조동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은 강동의 변화 속에서 늘 해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주요 업무계획과 안전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개정안’ 등 27건 안전 심사·의결 예정

구의회, 3~10일 임시회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3~10일 제25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9일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량로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반 기반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 및 장기기증등록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세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순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마포구 합정동 군부대 소속이 이전해야... 구정 평가 여론조사 통계 분석 제고·시정율”

이한동·채우진 구의원 5분발언

최근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학)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동 의원(서강·합정)과 채우진 의원(서강·합정)이 5분 자유발언을 나눴다. 두 의원은 5분발언에서 각각 ‘합정동 군부대 이전의 조속한 실행’과 ‘마포구정 평가 여론조사의 통계 분석 제고와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발언대에 오른 이한동 의

원은 17년째 답보 상태인 ‘합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이제는 ‘결토’나 ‘논의’ 단계를 넘어, 조속한 ‘실행’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민관협력 전담반 구성과 1만4000여명의 주민 서명부 제출에 이어, 2025년 5월 구청·국방부·권익위·주민대표 4자 간담회까지 개최된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국방부의 협의 속도를 높

이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즉각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채우진 의원은 최근 마포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구정 공평평가 84.5%’ 발표가 불명확한 통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시기와 기준, 명확한 대조군을 선택해 다시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평가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한 채 의원은 마포

구가 예로 들고 있는 타 자치구(성동구)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때, 마포구정에 대한 공평평가는 46%에 불과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또한 채 의원은 여론조사의 무게와 위용성을 강조하고, 구정 평가만 부족한 점을 찾아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음을 언급하며, 설문조사 분석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한호 기자 mmh@siminilbo.co.kr

설날,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종로구의회는 2026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고, 작은 변화가 큰 신뢰로 이어지도록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종로의 내일, 종로구의회가 묵묵히 책임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